

여성학적 관점에 의거한 배려윤리학의 실제적 의미

한 혜 정
(국민대학교 강사)

《 요 약 》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여성학적 교육과정이론가로 알려진 넬 나딩즈의 배려윤리학이 현대도덕 교육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나딩즈는 배려윤리학에 입각한 도덕교육방법으로서 본보기, 대화, 실천, 격려 등 네 가지를 제시하지만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한 그녀의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말하여 그것이 어째서 배려윤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에 입각하여 제시되는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것은 서구의 산업화 이전의 사회윤리나 동양의 전근대적인 사회윤리와 혼동되어 파악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배려윤리학의 근본적인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생각이다. 나딩즈가 제시하는 도덕교육방법이 현대도덕교육에 어떤 새로운 실제적 의미를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려에 관한 그녀의 철학적 건축이 무엇보다 '여성학적' 관점 위에서 건설된 것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딩즈가 말하는 배려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도덕적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가부장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배려에 입각한 나딩즈의 도덕교육방법은 여성학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인 만큼 철저한 여성학적 인식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배려윤리학, 배려, 관계중심, 상황중심, 여성학적 관점

I . 서론

이 글은 미국의 여성학적 교육과정이론가로 잘 알려진 넬 나딩즈(Nel Noddings)의 배려윤리학(care ethics)이 현대도덕교육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나딩즈의 배려윤리학은 앞으로 도덕교육을 어떤 종류의 인식에 의거하여, 또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이

다. 길리건(C. Gilligan)에서 시작되어 나딩즈에 와서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려윤리학은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려윤리학이 도덕교육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의 원인은 나딩즈의 배려윤리학 그 자체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딩즈는 자신의 책, 「배려」(Caring)에서 배려윤리학이 합리주의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녀에 의하면 합리주의 윤리학은 도덕의 문제를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행위의 논리적 이유를 찾는 정당화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도덕의 문제를 ‘수학적 방식으로’(Noddings, 1984: 8) 취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도덕의 문제를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는 너, 즉 타자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Noddings, 1984: 6)에 달려있다는 점을 망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개념은 배려윤리학이 덕목주의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딩즈는 자신의 다른 책, 「도덕적 인간의 교육」(Educating Moral People)에서 배려윤리학은 ‘각 덕목이 발휘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Noddings, 2002: 2), 배려윤리학은 ‘개인중심이라기보다는 관계중심이다’(Noddings, 2002: 2)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나딩즈는 배려윤리학이 합리주의 윤리학과 덕목주의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차별성 위에서 배려윤리학에서 말하는 ‘배려’가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분석한다.¹⁾ 그 뒤에 그녀는 배려윤리학에 입각한 도덕교육방법으로서 ‘본보기(modeling), 대화(dialogue), 실천(practice), 격려(confirmation)’(Noddings, 1984: 175-197; 2002: 15-21)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에 대한 나딩즈의 설명을 보면 그것이 어째서 배려윤리학에서만 독특하게 제시되는 방법인지 알기 어렵다. 사실상 위의 네 가지 도덕교육방법은 복잡한 철학적 설명 없이도 일반적으로 도덕교육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특히 덕목주의 윤리학에 의거한 도덕교육방법으로서 권장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녀의 설명은 배려윤리가 서구의 산업화 이전의 사회윤리나 동양의 전근대적인 사회윤리와 혼동되어 파악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배려윤리학의 근본적인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1) ‘나딩즈는 감정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고 개념적으로 매개되지 않는 무논리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만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이끌린다’(Pinar, 1981: 58-59)라는 파이너(W. Pinar)의 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려에 관한 그녀의 철학적 설명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논리적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교육방법으로 제시되는 위의 네 가지 방법들이 윤리학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어떤 본보기를 보여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나딩즈가 제시하고 있는 ‘본보기, 대화, 실천, 인정’이 배려윤리학 특유의 도덕교육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방법을 채우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지향점이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딩즈의 설명만으로는 그것에 대하여 짐작은 할 수 있어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배려윤리학에 입각한 나딩즈의 도덕교육방법으로부터 새로운 실제적 시사를 끌어내기 위하여 나딩즈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즉, 배려윤리학으로부터 도덕교육에 관한 새로운 실제적인 시사를 이끌어내려면 그것이 먼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나딩즈가 실제로 어떻게 의도하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녀의 설명을 논의의 출발로 삼되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주의 윤리학과 덕목주의 윤리학에 대한 그녀의 비판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배려윤리학이 그 두 윤리학과의 대조에서 가지는 차별성을 그녀가 제시한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개념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합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

합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의 초점은 그것이 정당화문제, 즉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에 있다. 합리주의 윤리학에 의하면 이러한 정당화문제의 제기가 지니는 궁극적 목적은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정당화문제는 원칙상 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 끝 지점이 상정된다. 즉, 정당화문제를 제기하다보면 그 문제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전제가 도출되고 그것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그 문제의 논리적 가정을 밝혀내는 끊임없는 과정이 끝나는 지점이 상정된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제기되지 않고 일체의 질문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그것이 곧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논리의 세계’로 상정된다.

이러한 논리의 세계는 인간의 삶 안에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현상적 사실로부

터 직접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적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요청되는’ 세계이다. 그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것에 의거하여 인간의 삶은 참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 정당성과 부당성 등 이원적으로 구분되며 그러한 이원적인 양 측면 중 긍정적인 측면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취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인 삶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설명 위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 속의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정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나딩즈는 이러한 합리주의 윤리학의 정당화 문제의 제기 그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합리주의 윤리학의 정당화논의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당화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하는가’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동기보다는 정당화 그 자체, 즉 그 당사자 밖에 있는 논리를 겨냥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덕적 판단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도덕적 판단이 신적인 명령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진리는 직관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식으로 논의를 일단 시작하고 나면 결국은 상대주의니, 절대주의니, 이기주의니, 이타주의니 등의 도덕적 행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여타의 무관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추상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들이지만 목하 우리의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한참은 멀어지는 것이다(Noddings, 1984: 94).

나딩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당화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즉, 정당화문제에 집착하면 도덕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거기에서 관계성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다른 어느 개념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모태로 하여 생겨난 개념이며 그것은 반드시 그 모태를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나딩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 있다. 내가 얼마나 선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거의 내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덕목을 실천하든 그것은 언제나 타인 안에서 완성되고 실현된다(Noddings, 1984: 6).

도덕성은 논리의 세계로 가는 혼자만의 외로운 여행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합리주의 윤리학의 정

당화문제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왜 합리주의 윤리학이 정당화문제를 중요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의 함양을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합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양의 윤리학적 전통에서 합리주의적 윤리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중세에 대한 항거로 시작되는 서양의 근대적 기획이 내재되어 있다’(한혜정: 43). 서양의 근대인들은 인간 삶을 온통 지배하였던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그것을 대치하여 인간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정표를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성적 능력에서 찾고자 하였다. 서양의 근대인들은 이성적 능력에 입각하여 종교적 색채에 의하여 은폐되어있던 비합리성을 밝혀내어야 했으며 그것에 입각하여 세상을 합리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나가야 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이전에는 기독교적 신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던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 왜 옳은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함양해 나가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당화문제에 집착하면 도덕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관계성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나딩즈의 비판은 합리주의 윤리학이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합리주의 윤리학 그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주의 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성의 한 측면으로서의 합리성이나 주체성 등의 개념은 그것의 한계를 가리키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의 공헌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합리주의 윤리학이 주장하는 합리성이나 주체성 등의 개념은 도덕성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될 수 없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 개인 대 집단의 관계, 집단 대 집단의 관계 등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것이 도덕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는 쌍방 모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그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합리주의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도덕성의 기본 전제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한 합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은 합리주의 윤리학이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에 대한 경계, 또는 합리주의 윤리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던 실제 도덕교육이 ‘도덕교육’이 아니라 ‘지식교육’, 더 심하게 말하여 ‘수학교육’처럼 된 것에 대한 반성인 한에서만 타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딩즈의 배려윤리가 전근대적 사회의 윤리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 덕목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

나딩즈는 배려윤리학이 덕목주의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도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개념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그녀에 의하면 배려윤리학은 덕목주의 윤리학과 달리 ‘개인중심적’이라기보다는 ‘관계중심적’이다. 배려윤리학은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적으로 구분된 7-8가지 덕목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덕목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한 배려윤리학은 관계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분된 몇 가지 덕목보다는 ‘온화함, 친근함, 유머감각, 정서적 센스, 좋은 매너 등과 같은’(Noddings, 2002: 2) ‘사회적 덕목’을 중요시한다. 덕목주의 윤리학에 입각하든, 배려윤리학에 입각하든 교실수업은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덕목주의 윤리학에 입각한 교실수업에서는 주로 ‘영웅이야기나 아니면 감화적인 이야기가 주로 사용되겠지만 배려윤리학에 입각한 교실수업에서는 어떤 도덕적 문제상황을 예시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가 주로 사용된다’(Noddings, 2002: 2).

배려윤리학과 덕목주의 윤리학의 차이에 대한 나딩즈의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우선 가지게 되는 느낌은 덕목주의 윤리학과 다른 배려윤리학의 특징에 대한 나딩즈 자신의 설명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사회적 덕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화함, 친근함, 유머감각, 정서적 센스, 좋은 매너’ 등을 왜 사회적 덕목으로 부르는지, 그러한 ‘사회적 덕목’들은 덕목주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덕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배려윤리학에 입각한 교실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야기, 즉 도덕적 딜레마를 예시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은 콜버그(L. Kohlberg)식의 합리주의 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적 딜레마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지²⁾ 등의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녀가 배려윤리학의 가치와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덕목주의 윤리학을 부당하게 폄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덕목주의 윤리학을 관계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의 윤리학으로, 도덕적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몇 가지로 구분된 덕목을 주입시키는 윤리학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배려윤리학의 시대적 요구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기존의 도덕교육의 두 가지 거대한 전통 — 합리주의 전통과 덕목주의 전통 — 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 않을

2) 나딩즈는 그 차이를 자신은 ‘도덕적 딜레마를 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제시한다’(Noddings, 2002: 2)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두 거대한 산맥 사이에서 배려윤리학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면 그 두 전통과 배려윤리학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주의 윤리학과 덕목주의 윤리학은 도덕성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각각 강조한다. 그리하여 합리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면 자연히 덕목주의 윤리학의 입장에 서게 되고 덕목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면 합리주의 윤리학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덕목주의 윤리학은 합리주의 윤리학에 비하여 도덕교육에 있어서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나딩즈가 배려윤리학의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기준은 배려윤리학과 합리주의 윤리학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준일 수 있지만 덕목주의 윤리학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합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칼날이 매우 날카롭다고 느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덕목주의 윤리학에 대한 나딩즈의 비판의 칼날은 다소 무디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기준에 입각하여 덕목주의 윤리학이나 합리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한, 나딩즈는 배려윤리학의 근본적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려윤리학의 근본적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비판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배려를 여성적 특성으로 보는 나딩즈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배려 윤리는 이들의 주장처럼 여성적 특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배려 윤리의 특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찾아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려윤리의 특성은 합리성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의 선진 산업 사회에서보다는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보다는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박병춘: 161).

나딩즈가 말하는 ‘배려’는 동양의 전통 사회, 농촌, 전통적인 농경 사회 등으로 예시되는 전근대적, 비합리적 사회에서 파악되는 ‘배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딩즈는 전근대적, 비합리적 사회에서의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딩즈가 합리주의 윤리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것을 합리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합리적 근대성을 부정하고 전근대성으로의 역행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배려는 이성적인 칼날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재단하고 단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적인 의미의 사랑과 관용, 희생정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의미도 아니고 근대적인 의미도 아닌, ‘제3의’ 의미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나딩즈가 배려윤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덕목주의 윤리학과 합리주의 윤리학 모두를 비판하고자 했던 의도도 바로 여기, 즉 그 양자를 통합하여 ‘제3의’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로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배려윤리학의 특징을 말하는 나딩즈의 설명은 그녀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한 예로 배려윤리학을 동양의 공맹식 유교윤리와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배려윤리는 구체적인 도덕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중심의 윤리이자, 상황중심의 윤리이며, 이와 같은 상황중심의 윤리, 관계 중심의 윤리는 유교윤리 특히 공자, 맹자의 유교윤리의 특성이기도 하다’(목영해: 50). 이 연구에서는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동일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함의가 제시된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 논지의 동일성은 두 윤리 모두의 발전적 전개에 도움이 된다. 배려윤리는 유교윤리와의 동일성에서 여성중심의 윤리 및 비공동체적 윤리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며, 유교윤리의 입장에서는 배려윤리와의 동일성에서 남성중심의 전근대적 윤리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는 것이다(목영해: 46).

이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배태된 배려윤리학을 도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전통적 유교윤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 시도로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배려윤리학의 근본적 취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배려윤리가 유교윤리와 가지는 공통점이나 동일성보다는 차이점이나 상이성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그 양자는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파악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파악되어서도 곤란하다. 이것은 곧 배려윤리학의 특징을 나딩즈가 제시하는 상황중심과 관계중심의 기준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나딩즈의 설명에서도 이미 찾을 수 있고 배려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여성학적’ 관점을 가리킨다.³⁾

3)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윤리학적 연구는 ‘여성적’(feminine) 접근과 ‘여성학적’(feminist) 접근으로 구분되어 파악된다. 여성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여성들과 관련하여 생각되어 왔던 양육, 동정심, 배려와 같은 특성들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학적 접근은 여성이 남성에게 의하여 종속당하고 있다는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그러한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도덕교육에서 어머니와 아기의 양육관계, 그 관계에서의 어머니의 배려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나딩즈의 논의를 보면 그것은 일단 ‘여성적 윤리학을 대표하는’(조난심, 2003: 79)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나딩즈의 논의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IV. ‘여성학적’ 윤리학으로서의 배려윤리학

나딩즈에 의하면 도덕교육을 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옳은가’ 등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대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딩즈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딩즈는 간단하게 말하여 ‘타인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대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하는 경험을 통하여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그렇다면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하고 타인으로부터 도덕적인 대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딩즈는 도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전형을 ‘어머니와 아기의 양육관계’에서 찾는다. 이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누구나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조건이다. 물론 사실적으로 보면 좋지 못한 양육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딩즈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전형으로서의 ‘어머니와 아기의 양육관계’는 그러한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사례 ‘이전’에 존재하는 것, 말하자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양육관계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 암암리에 작용하는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을 가리킨다.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머니와 아기의 양육관계’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사실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양육관계가 어떤 양상이었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도덕적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때 양육자가 반드시 생모일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양육관계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영아기나 유아기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물론 생모와 아기의 관계에서, 그리고 영, 유아기 때에 그러한 이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는 있다. 나딩즈는 이러한 어머니와 아기의 양육관계를 ‘자연적 배려(natural caring)’라고 부르고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양육관계에 대한 경험이 곧 그 개인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양한 관계를 비추어 볼 이상적 기준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딩즈는 이러한 자연적 배려의 특징을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배려가 무엇이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그녀는 자연적 배려관계에서의 배려자의 내면적 특징을 ‘전념(engrossment)’와 ‘동기 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⁴⁾라는 개념으로, 피

4) 여기에서 ‘전념’은 ‘다른 사람의 실체를 이해한다는 개념으로서 자신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박병준, 2002: 133)을 말하며 ‘동기전환’은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의 목적 또는 계획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한다’(박병준, 2003: 134).

배려자의 내면적 특징을 ‘수용(reception)’, ‘인정(recognition)’, ‘반응(response)’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연적 배려의 특징에 관한 나딩즈의 자세한 설명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모든 도덕적 관계의 원천을 이러한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로 대표되는 자연적 배려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그녀에 의하면 자연적 배려관계에서 배려자는 피배려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아무런 갈등도 주저함도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종류의 강제, 의무 같은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배려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욕구와 상충될 때가 많이 있다. 상대방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의무와 욕구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욕구를 ‘기꺼이’ 버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 원동력은 자연적 배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이상적 기준에 있다. 그리하여 나딩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려하고 배려 받았던 그 최상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바로 타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타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와 내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라는 느낌으로 우리 마음을 엄습해오는 것이다. 지식에도 전이가 일어나듯이 감정에도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Noddings, 1984: 79-80).

나딩즈는 얼마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경험한 자연적 배려의 성격과 강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각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자연적 배려의 경험을 이상적 기준으로 삼아 그것에 비추어 현재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조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각 개인의 마음에는 자신이 맺는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象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연적 배려의 경험으로 인하여 생긴 ‘理想的’ 상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實際的’ 상이다. 그리하여 도덕성은 이러한 ‘이상적 상과 실제적 상 사이의 역동적 관계’로 규정된다.

나딩즈의 이러한 설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 형성에 기여하는 온갖 다양한 관계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 배려를 받았던 경험, 그것을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성의 본성을 모성중심으로 정형화하고 여성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 한정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적 배려에 대한 나딩즈의 강조는 도덕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교육문화에 의하여 가려져 왔던 여성의 역할

5) 노딩스는 배려에서 배려자 뿐만 아니라 피배려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배려자가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때 비로소 배려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 더 정확하게 말하여 어머니의 역할 — 을 부각시켰다는 데에서 일차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나딩즈의 인식은 여성, 어머니에게 부과되어온 ‘배려의 전통이 사실은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Noddings, 2002: 51)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정 — 사적 영역 — 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 공적 영역 — 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배려의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Noddings, 2002: 56)는 사회적 인식과도 함께 하는 것이다.

나딩즈는 더 적극적으로 전통사회에서 가정이, 여성이 담당했던 배려의 역할을 이제 사회가, 학교가 맡아야 하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똑같이 직업교육을 받듯이 그들은 모두 배려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oddings, 200: 51)고 말한다. 이것으로 보면 나딩즈의 배려 윤리학은 사적 세계(가정)와 공적 세계(학교, 사회)의 분리라는 가부장적 교육문화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묻혀져 보이지 않던 사적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쉽 없이 이루어져왔던 여성에 의한 배려적 전통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와 동시에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의 분리를 일소하여 사적 세계에 대한 공적 세계의 권위적 지배, 그로 인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퇴치하고자 하는 ‘여성학적’ 인식을 도덕교육이라는 특정한 영역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V. 배려윤리학의 도덕교육방법

학교는 지성을 가르치고 도덕성은 교회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특성의 총체로서의 인간은 오히려 성장과정에서 전인이 아닌 반쪽 인간으로 형성될 뿐이다. 일체의 교육기관과 일체의 교육적 노력의 원초적 목적은 배려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부모, 경찰, 사회사업가, 교사, 설교자, 등 사회의 모든 성인들은 이러한 원초적 목적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Noddings, 1984: 172).

이와 같이 나딩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인은 모두 자라나는 세대의 도덕교육을 담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나딩즈가 말하는 ‘배려자’는 도덕교육에서 교사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배려자는 피배려자로서의 아이들과 원칙상 ‘자연적 배려’를 지향하여 그것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윤리학적 관점에서 나딩즈가 제시하는 도덕교육방법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

이 ‘본보기(modeling), 대화(dialogue), 실천(practice), 격려(confirmation)’이다. ‘본보기’는 말 그대로 배려자가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나딩즈는 배려자는 피배려자와 ‘대화’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배려자의 말을 ‘판단없이’ 그대로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 배려자는 대화의 기술을 특별히 훈련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나딩즈는 피배려자로 하여금 배려를 ‘실천’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배려에 대하여 단순히 생각이나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쓰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으며 직접 실천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습과정에서 어른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어른과 함께 다양한 과업을 협동작업을 통하여 수행해봄으로써 따라야 할 이상적 모델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의무가 아닌 즐거움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딩즈는 배려자는 피배려자로 하여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보다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주 어린 아이라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도덕심의 싹이 있지만 그것을 세심한 배려 속에서 격려 받지 못하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의 간섭이 필요한 것이다. 배려자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간섭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배려자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외에도 나딩즈는 피배려자의 도덕적 이상을 유지시켜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배려자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가 도덕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나딩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상생활의 찬양이 도덕적 이상의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첫째, 그러한 찬양은 배려자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성의 원천에 대한 경이와 감사로 눈을 돌리도록 한다. 일상생활은 우리가 배려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타인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상생활을 찬양하는 것은 타인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상생활의 경이로움은 낯이 모험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찬양하는 마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그것은 양육의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준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점점 익숙해진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즐거움과 경건함, 열려있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경건함을 불러일으킨다(Noddings, 1984: 126).

이러한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은 나딩즈의 처방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실제적인 시사를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본보기로 보여야 하며 한껏 열려있는 마음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라는 것인가? 어떤 것을 실천하도록 하라는 것인가? 나딩즈는 예컨대 학교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땅을 일구어 식물을

가꾸도록 하거나 병원, 양로원, 동물사육지 등을 방문하여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록 하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굳이 ‘배려윤리학’이라는 새로운 도덕교육이론에 의거하지 않고도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딩즈는 자신의 책 어느 한 부분에서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모두 배려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Noddings, 2002: 19)고 하면서 남자아이에게 배려를 가르치기 위한 실천 방도로써 ‘손님 접대하기, 동생돌보기, 집안살림 등을 배우게 해야 한다’(Noddings, 2002: 20)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마련한다. 나는 나딩즈의 저작 군데군데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여성학적 시각을 드러내는 말들을 기초로 하여 나딩즈의 도덕교육적 처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자칫 심하게 말하여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나딩즈의 도덕교육방법을 다시 재음미해보면 그것은 ‘여성학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가정과 사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벽은 허물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일소되게 될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배려의 역할은 이제 여성에게만 부과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상황이 요구한다면 자라나는 세대의 도덕교육을 위하여 자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배려윤리학에 들어있는 이러한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배려자는 누구보다도 여성학적 인식에 철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려자가 본보기, 대화, 실천, 격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무리 고매한 도덕적 이상을 피배려자에게 심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나딩즈의 배려윤리학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딩즈의 ‘배려’는 전근대적이고 남녀차별적인 사회가 아닌, 합리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에서의 도덕적 인간관계를 규정짓는 새로운 개념이며 그것에 입각한 도덕교육방법으로서의 본보기, 대화, 실천, 격려의 방법은 철저한 여성학적 인식 위에서 여성학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딩즈의 배려윤리학은 합리주의 윤리학과도, 덕목주의 윤리학과도 다른 것이지만 합리주의 윤리학에서 주장되는 합리성의 중요함, 그리고 덕목주의 윤리학에서 주장되는 덕목의 아름다움 모두를 놓치지 않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윤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배려윤리학이 현대도덕교육에 어떤 새로운 실제적인 시사를 주는가의 문제에 대한 이 글의 답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배려윤리학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 도덕교육을 하기 위하여 배려자와 피배려자는 서로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인식의 방향

을 뒤트는 일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고대 희랍의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서양 윤리학의 역사는 먼저 나온 이론의 한계를 나중의 이론이 비판하고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 방대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역사의 끝자락은 콜버그 식의 합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그것의 대응으로 부활된 맥도웰(J. McDowell)이나 맥킨타이어(A. McIntyre) 식의 덕목주의 윤리학이다. 배려윤리학은 이러한 합리주의 윤리학과 덕목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배태되었지만 그것들과 동일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존재와 경험, 그리고 여성의 완전한 도덕성함양의 가능성을 은연중에 부정해온 ‘남성중심적인’ 윤리학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금세기에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여성학적’ 윤리학의 역사 속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하여 여성학적 윤리학의 역사가 기존 윤리학의 역사와 영원히 대치하여 평행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중심적 역사에서 비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반복하면서 그 동안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여성의 경험을 되살림과 동시에 두 역사가 한데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역사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학적 관점에서 나딩즈의 배려윤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물론 나딩즈도 자신의 글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여성학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성학적 관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나딩즈가 여성학적 특징을 관계중심, 상황중심 등 배려윤리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의 한 가지로, 그것도 맨 나중에 언급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덕교육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여성학적 관점이 배제된 채로 제시된다. 나딩즈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배려윤리학이 여성학적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보다는 더 끈끈한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살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칫 그것이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의 윤리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될까 여전히 걱정스럽다.

참 고 문 헌

- 목영해(2002).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점과 그 함의. *도덕교육연구*, 14(1), 45-69.
-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울력.
- 조난심(2003). 제3장. 배려윤리와 도덕과교육. *도덕교육학신론*. 문음사. 65-87.
- 한혜정(2002). 동양의 도덕관이 현대도덕교육에 주는 시사. *교육학연구*, 40(6). 한국교육학회. 41-55.
- Nel Noddings(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el Noddings(2002).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illiam F. Pinar(1981). Caring: Gender Considerations. In William F. Pinar(e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vol.70. Peter Lang. 56-60.

• 논문접수 : 2004년 4월 9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5월 16일 / 게재 승인 : 2004년 6월 7일

ABSTRAC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Care Ethics from the Feminist Viewpoint

Hye-Chong Han
(Lecturer, Kookm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Noddings' 'Care Ethics' on the current moral education. Noddings shows four methods of moral education such as modeling, dialogue, practice, confirmation,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ir practical meaning only with her explanations about them. What is worse, there is a possibility for misunderstanding that care ethics is similar to that of premodern or patriarchal society. This association can be very dangerous. To understand the right meaning of care ethics, we have to thoroughly realize that her care ethics is constructed on the 'feminist' basis. The 'caring' in Noddings' ethics is the concept to describe the new human relationship in the rationalized and non-patriarchal society, not in premodern and patriarchal society, and Noddings' moral education methods are for cultivating the feminist epistemology from the moral viewpoint.

Key Words : care ethics, caring, relation, context, feminist viewpoint